

『라사리요 데 토르메스』의 형식요소와 인본주의 정신

김 춘 진

(서어서문학과 조교수)

I. 서 론

『라사리요 데 토르메스 *Lazarillo de Tormes*』는 문예부흥기의 스페인 산문이 근대적 소설로 발전해가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 작품이다. 때로는 『동끼호테』보다도 반세기나 앞선¹⁾ 근대적 의미의 리얼리즘 소설의 효시로 간주되기도 한다. 중세의 스콜라철학을 대신하여 신플라톤주의가 사상적 주류를 이루던 16세기의 스페인 사회에서 산문의 보편적 경향은 이상주의를 지향하고 있었거니와, 현실을 도외시한 기상천외의 모험물인 기사도소설을 폐리디하면서 문학의 현실복귀를 천명한 세르반테스가 바로 스페인에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 혹자는 에라스무스의 휴머니즘 영향을 내세우고²⁾, 또 다른 사람은 신대륙발견 이후 팽창일로를 달리던 스페인 사회가 16세기 후반부터 쇠퇴해가면서 사회전반에 위기의식이 대두되었고, 거기에서 비롯된 이상의 붕괴와 좌절감이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환멸을 가져왔다고 분석한다.³⁾ 어찌되었던, 휴머니즘과 아울러,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비현실적 이상주의를 기독교적 현세적 도덕질서로 환원시키려던 반종교개혁 La Contrarreforma은 역설적으로 리얼리즘을 잉태시키는 촉매적 기능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스페인문학 전통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담보하는 역사적 근원이 무엇보다 아랍과 히브리 동방문화와의 접촉에 있으며, 『동끼호테』나 『라사리요』와 같이 현실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를 근간으로 하여 소설적 아이러니를 창출한 것은 삼중의 문화적·종교적·인종적 갈등이 빚어낸 산물이라고 지적한 것은 아메리코 카스트로 Américo Castro였다.⁴⁾ 그러나 이러한 특수한 역사적 배경이 문예부흥기의 스페인 산문의 리얼리즘적 경향에 미친 주요한 영향 중의 하나임에는 틀림없겠지만, 현실에 대한 아이러니적 반응

1)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는 『라사리요 데 토르메스』는 1554년의 3가지 판본이나 실제 원본의 출간은 1553년경으로 추정된다. Francisco Rico "Introducción" al *Lazarillo de Tormes*, Planeta, 1982, p.15.

2) Marcel Batallion: *Erasmus y España*, Fondo de Cultura Económica, Madrid, 1983, pp.777-806.

3) Alexander A. Parker: *La Filosofía del Amor en la Literatura Española*, Cátedra, Madrid, 1986, p.134.

4) Américo Castro: *Hacia Cervantes*(Madrid, Taurus, 1967), *La Realidad Histórica de España* (México, 1966)을 참조할 것.

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을 통해 소설의 발전에 기여했는가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러한 역사적 요인을 고려하면서도 『동키호테』와 같은 리얼리즘 소설이 출현하기까지 스페인의 문학적 전통이 지니는 독창성과 거기에서 비롯되는 산문의 내재적 발전요인을 고려해 보는 것도 중요한 작업으로 생각된다.

스페인의 16세기 문학은 그 형식이나 장르에 있어 중세와는 달리 다양한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졌으며, 소설의 형성은 그와 같은 문학형식의 역동적 변화, 특히 산문의 형식적 발전과정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르네상스기에 나타나기 시작한 장르의 형식적 변용은 민간전승의 구전문학을 문자체제로 정착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이었으며, 그것은 체계적이며 통일적인 구성원리를 지향하게 되었다. 『라사리요』는 산문이 근대적 픽션으로 발전되어 가는 과정에서 르네상스기에 새롭게 출현하는 구조적 페러다임을 어떻게 수용하고 통일적 장르를 모색하는가를 보여주는 예시적 모델이며, 그 때문에 우리의 주목을 받을 만한 것이다. 기존의 이야기체 산문들이 창작의 형식이나 구성원리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서로 별개인 에피소드들을 염주식으로 꿰어 나열하는 원초적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데 비하면, 『라사리요』는 나레이터의 서술시점을 고정시켜 유래를 달리하는 에피소드들을 단일플롯에 통합함으로써 소설구조와 등장인물의 궤적을 유기적으로 일체화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통일적 구성원칙은 전통민담의 구조적 이완성을 보완하고 이야기서술의 구심점을 마련해 준다. 동시에, 인물과 상황 사이에서 불변의 대응동식을 보여 주는 인물의 고정성에서 탈피하여 이야기의 시작과 결말 사이에서 인물의 성격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것도 『라사리요』를 근대적 소설로 접근시키는 중대한 변화인 것이다. 현실상황에 대한 인물의 반응과 그로 인해 야기되는 갈등은 인물성격을 그 내면으로부터 변화시켜, 『라사리요』 이전의 이야기체 소설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16세기 스페인 산문 발전의 결정적 전기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라사리요』가 소설적 산문의 불모지에서 돌연히 출현했다거나 그 자체 전통적 요소를 완전히 청산한 초시대적 작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다. 새로운 문학형식의 출현은 과거 전통의 극복인 동시에 수렴이라는 양면적 성격을 보이게 마련인 것이다.⁵⁾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익명으로 전해지는 『라사리요』의 작가가 보여준 새로운 소설의 지평도 실은 누적된 전통의 토대 위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 내부분의 에피소드들은 민간전승 Folklore이나 우스개이야기 Faceciae 또는 다양한 속담과 경귀들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라사로 까베테르 Fernando Lázaro Carreter는 『라사리요』가 프루 Vladimir Propp이 분석한 러시아 민담들의 구조적 성격과 대체로 일치함을 입증하였다.⁶⁾ 결국, 문제가 되는

5) Luis Cernuda: *Estudios sobre la poesía española contemporánea*, Gudarrama, Madrid, 1957, p.11.

6) "Lazarillo de Tormes" en la picaresca, Ariel, Barcelona, 1972, 특히 제 2 장인 "Construcción y sentido del Lazarillo de Tormes (pp.61-187)을 참조할 것.

것은 전통에서 혁신으로의 이행과정에서 보여지는 주요한 변수들은 어떤 것인가일 것이다. 또 그것이 문예부흥기 스페인 문학의 구조적 패러다임으로 상정될 경우, 그것은 무엇에 근거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도 조명되어야 할 과제인 것이다. 우리는 『라사리요』를 하나의 분석소재로 상정하고 이 소설에 나타나는 형식적 인자들을 추출해 볼 것이다. 허친 Linda Hutschen은 『동끼호테』의 기사도소설에 대한 패러디에 주목하면서 문학형식의 발전과정은 패러디되어지는 모체로부터 해방되는 동시에 그것을 극복하여 독립된 새로운 형식을 창조해 내는 “변증법적 종합 dialectic synthesis”에 있다고 보았거니와⁷⁾, 우리가 『라사리요』를 통해 추출하는 형식적 요소들은 이미 그것의 모체가 되는 산문양식들의 패러디적 성격을 지니는 동시에 그것의 유기적 통합으로 또 하나의 변증법적 종합인 소설형식에 접근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와 동시에 그러한 형식요소의 통합과 극복으로 종합되는 『라사리요』의 근대적 소설로서의 면모는 무엇보다 르네상스적 시대정신을 토양으로 하고 또 그것을 문제시 한다는 점에서, 16세기 스페인 산문의 발전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변화의 모델로 제시될 수 있겠다.

II. 본 론

『라사리요』는 기사도소설이나 목가소설과 같은 이른바 이상주의소설과는 대척적 관점에 선다. 라사리요라는 주인공은 영웅기사나 고귀한 신분의 왕자도 귀족도 아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소외된 하층신분의 방아쟁이에 도벽을 일삼는 아버지와 하숙집 허드렛일에 천한 아랍인과의 불륜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머니를 부모로 하여 태어난, 지극히 저급한 사회계층의 더할 나위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인물이다. 그나마 아버지는 전장으로 끌려가 불귀의 혼이 되었고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어머니는 세상모르게 친진한 라사리요를 장님의 시동으로 의탁시킨다. 이때부터 라사리요의 삶의 과정은 위선과 기만, 허영과 과식에 일그러진 사회현실에서 생존을 확보하는 동시에 그 댓가로 스스로의 인간적 가치상실 상태로 전락해가는 이율배반적 아이러니를 보여 준다. 회랍·로미의 고전에 대한 향수 어린 복원이 문화적 이성이었으며 비르질리우스의 스타일의 분리원칙이 파기할 수 없는 문학적 규범으로 존중될 수밖에 없었던 16세기 스페인에서 『라사리요』는 가장 저열한 사회현실로 창작의 시선을 모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저급한 소재를 인간 현실의 보편적 문제의식이라는 진지성을 가지고 다루고 있다. 그러나 『라사리요』의 아이러니는 주인공이 사회비판의 표적으로 삼은 위선과 기만을 스스로의 생존기반으로 체득하게 된다는 가치전도적 의미굴절에서 뿐만 아니라 소설의 형식적 측면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를테면, 『라사리요』는 주인공의 일인칭 서술로 이른바 자전적형식을 취하고 있거니와 사회적 하층신분에 속한 인

7) Linda Hutschen: *A theory of Parody*, Methuen, N.Y., 1985, p.35.

물의 자서전이라는 서술형식 자체가 반어적인 것이다. 자서전형식의 고전적 모델은 성 오거스틴의 『고백론』으로 증세는 물론 르네상스기의 페트라르카의 『비망록 *Secretum*』과 같은 자서전 문학에 교범적 역할을 하였다. 산타 테레사 Santa Teresa de Jesús(1515~1582)의 400여 편에 이르는 서간문은 수녀로서의 소명과 카톨릭의 개혁활동과 그에 대한 성찰을 그려내고 있거니와, 특히 그녀의 인생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인생론 *Libro de su vida*』은 성 오거스틴보다도 오히려 루소의 『고백론』에 접근하는 스페인 자서전문학의 귀감으로 손꼽힌다. 그러나 문예부흥기의 스페인문학이 보여준 특징 중의 하나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삶의 고백인 자서전문학이 지극히 빈약하여 자신의 사상이나 내면적 성찰의 표출보다는 시대나 사회상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에 머무는 작품들이 많았다는 점이다. 그 때문에 사실적 자서전보다 이야기거리로서, 더 나아가서는 픽션으로서의 자서전 형식이 발전하는 배경이 준비된 것은 아닌가? 어찌되었건, 자서전문학은 사회적으로 자신의 명예를 드러낼 수 있거나 규범적 역할을 하는 인물들의 전유물이거나 또 그런 경우에 가치를 발휘하는 문학형식이었을 것인데, 명예스럽지 못한 신분과 자랑스럽지 못한 인생을 살아온 라사리요⁸⁾와 같은 인물의 자서전이란 자학이 아니면 아이러니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장님의 시동에서 출발하여 서술시점의 상황, 즉 고위성직자와 아내의 부정을 댓가로 톨레도 Toledo의 포도주장수가 되기까지 라사로는 자랑스럽기는 커녕 치욕스러우며 남들에게 밝히기조차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온 셈인데, 이를 입신양명으로 자찬하여 만인의 “귀감”이 될⁹⁾ 인생고백론으로 펴낸 것이다. 주인공은 전문에서 “명예가 예술을 만든다 *Honos alit arte*”고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고백론이 명예를 추구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¹⁰⁾ 게다가 스스로의 아이러니를 강조라도 하듯이, 명예를 자부할 수 있는 인물계층으로 성직자와 귀족 그리고 정복과 팽창의 시대에 스페인이 가장 필요로 하던 군인계층을 꼽음으로써, 자신과 같은 미천한 신분의 인물이 명예를 추구하는 자체가 지극히 예외적인 것임을 밝힌다. 달리 말하면, 그것은 당시의 통념성 한 인물의 인생이나 업적을 제시하는 전기물은 특정의 신분계층에 국한될 성질의 것이었다는 말이 된다. 르네상스기 인물의 이상적 전형을 제시한 카스티요네 Castiglione의 『궁정인 *Il Cortegiano*』도 그 신분계층의 소속요건으로 “훌륭한 가문 출신”이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¹¹⁾

결국, 문제의 초점은 『라사리요』가 작가의 삶의 사실적 체험을 기록한 진정한 자서전이

8) 리케르 Martín Riquer는 『라사리요』를 “바람직스럽지 못한 자서전”이며, 특히 16세기 스페인 사회에서 아무도 라사로와 같은 환경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La Celestina y Lazarillos*, Barcelona, 1959, p.108).

9) *Lazarillo de Tormes* (ed. Francisco Rico), Planeta, Madrid, 1980, p.7: 라사리요는 서문에서 자신의 고백이 “운명의 신이 불공평하여, 어떤 사람들은 부당하게도 고귀한 신분을 물려받았으며, 그와는 달리 역경에 처해도 힘과 기지로 노를 저어 훌륭한 항구에 이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어 냈는가를 생각하게 함”이라고 적고 있다.

10) 인용된 책, p.6.

11) Juan Boscán의 스페인어 번역판, *El Cortesano*, Ch. II를 참조할 것.

아니라 자서전이라는 형식만을 빌린 픽션이라는 것으로 귀착된다. 다시 말해 자서전이 화자와 주인공의 완전한 일치에 기초하는 데 대해 라사리요라는 인물과 작가는 평행선상에 놓인 서로 다른 별개의 존재인 것이다. 따라서 작가와 인물은 유사관계에 놓이거나 전혀 별개의 존재양식으로 남을 수 있으며, 그러한 자서전적 픽션에서 작가와 인물의 일체화는 필연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와 주인공 간의 사실적 등식관계를 전제로 한 자서전 형식은 물론이고 그와는 다른 상상과 허구의 픽션이라 하더라도 명시적으로 밝히는 정체성의 문제와는 관계없이 작가의 인생문제는 가공의 인물을 통해 우회적 또는 비인칭적으로 표현되게 마련인 것이다.¹²⁾ 특히, 문예부흥기 문학에서 다른 어느 시대보다도 이리한 자전적 요소가 두드러짐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가르실라소 Garcilaso de la Vega의 『목가시 *Eglogas*』나 티모네다 Juan de Timoneda의 『이야기집 *Patraña*』 또는 세르반테스의 『모범소설 *Novelas Ejemplares*』 등은 상당부분이 작가 자신의 자전적 요소들을 문학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자서전적 픽션은 그것이 소설, 시가, 희곡 등 어떤 장르로 나타나건, 작품 속의 인물로 자신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거나 대리의 인물을 통해 자신을 감춘 것이건 작가의 인생을 표현하는 한 방법이며, 이러한 독특한 형식을 통해 작가의 개인적 관점을 제공한다는 독자와의 묵시적 계약을 진제로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라사리요』는 아메리코 까스트로 Américo Castro가 지적한 바대로 자전적 요소를 통해 작가의 사회현실에 대한 고발을 내포한다고도 볼 수 있다. 스페인의 역사와 문화에서 무엇보다 쉘문화의 영향을 강조하는 저명한 문학사가요 평론가였던 그는 『라사리요』의 작지를 개종한 유대인 judeo-converso으로 추정하면서, 비카톨릭, 즉 이슬람교나 유대교에 대한 종교 탄압과 신분차별이 어느 때보다도 가혹했던 당시의 스페인사회에서 허영과 위선에 찬 카톨릭 성직 계급이나 사회현실 전반을 비판하고 고발하려는 작가의 의도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이 소설이 자서전형식을 취할 때 익명을 필요로 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결론짓는다.¹³⁾ 그러나 아메리코 까스트로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라사리요』가 익명의 유대인의 자서전이라는 사실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특징의 이데올로기를 부각시키려는 상당히 경직된 추정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 소설의 주요한 에피소드들이 한 인간의 체험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민속적이며 대중적으로 알려진 민담에서 추출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라사리요』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것의 자서전적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서전적 형식에 있을 것이다. 현실비판의 모티브로 하는 한 미천한 인물의 자전적 고백은 그러한 비판적 동기를 반어적으로 제시하기에 적합한 형식적 구조물에 불과하며 바로 이 때문에 자서전 형식자체가 이미 페리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그러한 자서전적 픽션의 형식적 구조와 전승민담에서 발원하는 에피소드들은

12) José Romera Castillo: *La literatura como signo*, Playor, Madrid, 1981, p.28.

13) Américo Castro: *Hacia Cervantes*, Tauus, Madrid, 1960, p.137.

픽션의 차원에서 필연적으로 맞물려 있으며, 이로써 『라사리요』를 통해 강조되는 것은 명예 honos가 아니라 예술적 창조 arte에로의 접근인 것이다. 이처럼 예술을 위한 형식적 기교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라사리요』가 산문발전과정에서 획기적 전환점을 이룬다는 중요성과 거기에서 비롯되는 문학사적 가치를 세롭게 평가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라사리요』가 보여주는 그러한 획기적 전환점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인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허구의 자서전 형식이란 『라사리요』가 초유의 것은 물론 아니다. 『라사리요』의 일인칭 허구형식의 기원을 찾으려면, 희랍의 밀레시아 출신의 작가였던 루치아노 Luciano de Samosata(125~192)의 『황금나귀 *El asno de oro*』로 특히, 이 작품이 16세기 스페인 사회에 널리 유포되어 있었음은 『라사리요』의 작가도 이 작품을 친숙하게 알고 있었으리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¹⁴⁾ 일인칭 나레이터인 작가가 나귀로 변신 metamorfosis 하면서 여러 계층의 주인을 섬기고 그들로부터 받는 고통을 그려낸 이 작품의 구조적 골격이 『라사리요』의 그것과 유사한 것은 익히 지적되었던 바이다. 특히 운명의 변질과 역경을 오로지 자신의 기지로 극복해야 하는 주인공의 이야기나, 여러 주인을 섬기며 겪는 굶주림과 불행 등이 두 작품 사이의 직접적 연관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¹⁵⁾ 결국 『라사리요 데 포르메스』의 형식적 골격은 당시 일반 독자에게 친숙했던 문학전통에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사리요』가 지니는 혁신적 면모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루치아노 전통과 르네상스 시대의 문예이론과의 결합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문학의 쾌락원칙과 도덕성을 동시에 추구한 호라티우스 Horatius의 이론 “prodesse et delectare”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제시되는 “땀진성 Verosimilitud”의 규칙은 문예 부흥기의 주요한 고전적 문예규범이었다. 그러나 16세기의 스페인문학에 무엇보다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에라스무스의 종교개혁사상과 거기에서 파생된 휴머니즘운동에서 비롯된다 할 것이다.¹⁶⁾ 에라스무스는 스페인에서 미약하게나마 전개된 종교개혁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페인어로 소개된 다수의 그의 저서는 스페인 산문발전에 적지 않은 족적을 남겼다. 특히 그의 영향을 받은 스페인의 휴머니스트들은 에라스무스의 문체를 하나의 규범으로 받아들였으며, 플롯의 구조상 서스펜스를 창출하는 동시에 교육적 원리를 충실히 추구한 비잔틴소설을 예찬하는 한편, 기사도소설에 대해서는 현실을 외면하고 비

14) Fernando Lázaro Carreter, 인용된 책, pp.33-66; 라사르 까레데르에 의하면, 『라사리요』가 그 생성단계에서부터 구조적으로 가장 근접하고 있는 작품이 다름아닌 라틴시대에는 아풀레오 Apuleyo, 희랍시대에는 가명의 루치아노에 의해 서술되는 루치오 데 파트라스 Lucio de Patras의 이야기이다.

15) M.J. Asensio: “Más sobre el *Lazarillo de Tormes*”, *Hispanic Review*, XXVIII, 1960, p.248.

16) 마르셀 바타온 Marcel Batallion은 에라스무스의 사상이 16세기 스페인의 인문주의 운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스페인 역사를 통해 항구적으로 영향을 미쳐왔다고 갈파하면서, 그 예로 스페인의 민족적 좌절을 극복하려던 20세기 초엽의 98세대의 사상적 기초에도 크라우제 Friedrich Krause의 철학은 물론 에라스무스의 개혁적 전통이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인용된 책 p.805).

현실적이며 기상천외한 모험과 선정성을 문제삼아 반사실적이며 반도덕적 문학이라고 공격하였다. 요컨대 에라스무스를 추종한 스페인 인본주의의 문학적 규범은 도덕성과 뫼진성의 원리를 최선의 가치로 강조하였던 것이다. 바타운 Marcel Batallion은 일인칭 시점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서술하는 자서전적 픽션은 그 형식 자체가 서술되는 내용을 보다 사실적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이미 뫼진성의 원리에 충실하려는 의지를 반영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¹⁷⁾ 어쨌든, 『라사리요』가 루치아노의 전통을 물리받았더라도 그것이 보여 준 산문발전의 원동력은 16세기 스페인 사회에 잠재해 있던, 그래서 보다 덜 급진적인 에라스무스의 인본주의 및 개혁정신과 융합할 수 있었던 리얼리즘정신이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리얼리즘정신이란 문예부흥기 스페인의 민담과 속담 또는 경귀들에서 보편적으로 관찰되는 풍자와 해학을 기조로 하는 것이며, 또한 다른 유럽사회와는 달리 아랍, 유대교 그리고 카톨릭이라는 삼중의 문화지 갈등에서 배태된 것이기도 하다. 동방과 서양의 이중적 또는 아랍, 유대교 및 스페인이라는 삼중의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현상을 극구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갈등의 사회구조하에서 비판과 체념의 이율배반적 가치의식이 싹텄고, 그 때문에 스페인문학이 독특한 해학적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신분상승을 통해 혈통의 굴레와 가난의 질곡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결국은 위선과 기만에 가득찬 사회의 구조적 힘에 의해 말살되고 스스로를 더욱 간교한 위선자로 변신하게 만드는 왜곡된 현실 앞에서 라사로의 모습은 비판과 체념이 한 데 응어리진, 그래서 투쟁이 아니요 절망은 더욱 아닌, 스페인적 해학의 자세 바로 그것이다. 그러한 해학적 리얼리즘의 토대 위에서 왜곡된 현실 만큼 이율배반적인 자신의 삶을 “나”를 통해 서술하고, 자신을 굴절시킨 위선적 현실을 저주의 대상이나 객체로 바라보지 않고 “나”의 체험으로 포용하려는 라사로에게 자서전적 형식은 필연적 귀결이었을 것이다. 여기서 바로 『라사리요』의 리얼리즘정신의 뿌리를 이해할 수 있거니와, 그것은 문예부흥기 스페인 인본주의의 본질을 해명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라사리요』의 자서전적 형식에는 단순한 루치아노식의 사회풍자나 고발의 성격을 넘어 스페인 사회가 잉태한 해학적 의미가 깃들여져 있으며, 그것은 16세기 스페인 인본주의의 중심점이 된 에라스무주의자들의 문예이론이 추구한 뫼진성의 원칙과 결부되어 리얼리즘 소설의 뿌리를 내리는 출발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라사리요』에서 쓰여진 바와 같은 일인칭 자서전 형식이 르네상스라는 사회상황하에서 갖는 보편적 가치는 어떤 것일까? 신중심적인 중세사회로부터 인간중심적 사회사상으로의 세계관의 변화에서 르네상스가 발원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한다면, 자서전형식은 인간과 인간이성을 존중하려는 인본주의정신과 분리해 생각할 수 없는 것인지

17) Marcel Batallion: *Novedad y fecundidad del “Lazarillo de Tormes”*, Anaya, Salamanca, 1968, p.51.

모른다. 경험적 이성의 주체로서의 인간의 자아의식은 예술의 표현양식에서도 “나”를 구조적 중심으로 선택하는 자서전적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되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작가가 前文에서 밝힌 바대로 『라사리요』가 예술을 통해 명예를 구가하는 자아의식의 발로라면, 자서전형식은 르네상스의 시대정신, 즉 자아확장의 표현양식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자서전형식은 『라사리요』라는 한 작품에 국한되지 않고, 마테오 알레만 Mateo Alemán의 『구스만 데 알파라체 *Guzmán de Alfarache*』(1599), 케베도 Francisco Gómez de Quevedo y Villegas의 『부스꾼의 생애 *Vida del Buscón*』(1626) 등 사회하층민의 생존과정이라는 유사주제의 작품들에 일관되게 적용되어 ‘악자소설 *La novela picaresca*’이라는 소장르의 구조적 축으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당시의 문학적 표현에 보편적 형식으로 수용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자서전형식과 르네상스의 시대정신 사이의 상관성을 강조하는 것이 반드시 무리한 추정에만 그치지 않는 것을 것이다. 라사로는 그의 자전적 이야기를 “나오리 무엇보다 먼저 나를 라사로 데 포르메스라고들 부른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Pues sepa Vuestra Merced, ante todas cosas, que a mí llaman Lázaro de Tormes*”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으며, 『부스꾼의 생애』의 파블로도 첫머리에 “나는, 나오리, 세고비아 출신 이올시다 *Soy, señor, de Segovia*”라고 천명한다. 다시 말해 양소설의 주인공은 처음부터 다같이 “나”의 확고한 위치설정을 강조하는 동시에 그들의 이야기가 다른 무엇보다도 “나”의 표현을 지향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해명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 인두라인 Domingo Ynduráin과 같이 앞서 인용된 두 문장의 문법적 주어에 주목하면서 “남들이 나를 라사로로 부르는” 라사리요의 경우보다 주체적으로 “나는 세고비아 출신이라”고 밝히는 파블로의 경우에서 신분상승을 피하는 하층민의 몰염치에 대한 반이적 페러디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¹⁸⁾ 주장한다면, 이들 자서전형식에서 “나” 중심의 르네상스정신을 발견하려는 의지는 피상적 형식논리에 불과한 것이 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형식논리의 가능성을 저버릴 수 없다. “나”의 표현양식인 자서전형식은 그것이 『라사리요』나 『부스꾼의 생애』에서처럼 페러디로 희생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페러디의 존재 자체가 이미 역설적으로 인본주의적 “나”의 정신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나”의 존재론적 가치를 고양시키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동일한 “나”의 정신적 가치상승을 억압하려는 이율배반적 페러디야말로 스페인전통의 해학적 리얼리즘정신과 르네상스적 인본주의의 논리를 결부시키리던 앞서의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닐까? 종교재판 *Inquisición*의 두터운 장벽으로 16세기 스페인의 인본주의 운동은 우회적일 수밖에 없었고, “나”를 되찾으려는 종교개혁운동도 에라스무스주의와 같이 완곡한 질충주의를 택하거나 아니면, 그나마 반종교개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고려한다면, 『라사리요』나 『부스꾼의 생애』의 경우 —더구나 후자에서처럼

18) Domingo Ynduráin: “Introducción” a *El Buscón*, Cátedra, Madrid, 1983, p.26.

작가가 사회적으로 상위의 신분에 속하는 경우에 더욱 설득력이 있을 것이지만— 신분이 천한 주인공과 같은 인물의 자아의식을 고취하려는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사회체제 내부에서 부상하는 하층계급의 도전을 두리위하는 지배계층이 자기중심적 체제의 합리화를 위해 내뱉는 독설적 페러다라는 주장이 성립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새로운 사회적 “자아” 또는 휴머니즘적 “나”의 존재가 자리잡아가는 시대상황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 “16세기 중엽의 위대한 발견”¹⁹⁾으로 일컬어지는 자서전형식이 스페인문학, 특히 『라사리요』에서 지니는 의미는 스페인의 인본주의가 리얼리즘 정신과 각별한 상관성을 보인다는 사실일 것이다.

자서전적 형식의 일인칭 서술주체는 어떤 형태로이건 자신의 메시지를 수취할 대상, 즉 수신자를 상정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그 수신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자서전형식은 의미구조의 변화를 보이게 될 것이다. 『라사리요』는 실제의 자전적 전기물이 아니라 예술성을 지향하는 하나의 픽션이라는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것이 픽션이라는 사실은 서술주체인 나와 수신자의 관계설정의 폭을 자유롭게 하지만, 동시에 어떤 페러다임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그 소설적 성격이나 미적 가치를 변용시키게 된다. 이를테면, 자신을 수신대상으로 한다면, 독백의 형식으로 나타날 것이요, 소설 속의 인물이 대상이라면 대화체로, 불특정의 일반독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서간체의 형식으로 귀결될 것이다. 본래, 회람의 회곡이 단일인물을 중심으로 한 독백에서 시작되었고, 원초적 문학형식이었던 시도 본래 나를 향한 “나”의 표현에서 비롯되었다. 소설이 제삼자지향적인 “그”의 서술을 특징으로 할 때, 16세기 스페인 산문이 지향한 소설로의 발전이란 결국, 서술주체인 화자는 물론, 수신대상의 객관화, 보편화 과정으로의 이행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보면, 문예부흥기라는 시대적 맥락에서 『라사리요』의 일인칭형식이 어떤 수신자를 대상으로 하는가를 관찰하고 그것이 지니는 의미를 고려해 보는 것은 전혀 무익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비록 『라사리요』가 픽션의 성격상 불특정 다수를 독자대상으로 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형식상 주인공보다 고위의 신분계층에 속하는 익명의 “귀하 vuestra merced”에게 보내는 서간문형식을 취한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게 된 동기를 밝히는 前文에서 라사로는 자신에게 관련된 “특정사안 El caso”에 관해 상세하고 폭넓은 설명을 바라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귀하”의 요청에 따라 편지를 쓰게 되었다고 적고 있다.²⁰⁾ 또한 모두 7장에 걸친 소설의 전개과정에서도 수차례 “귀하”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을 계기로 주인공의 이야기가 “귀하”라는 수신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서간형식을 그대로 유지해 나간다.

19) Marcel Batallion: *Novedad y fecundidad del Lazarillo de Tormes*, Anaya, Salamanca, 1968; Lázaro Carreter, 인용된 책, p.24에서 제인용.

20) “Suplico a Vuestra Merced reciba el pobre servicio de mano de quien lo hiciera más rico si su poder y deseo se conformaran. Y pues Vuestra Merced escribe se le escriba, y relate el caso muy por extenso...” (*Lazarillo de Tormes*, p.7).

서간체형식이라는 것이 『라사리요』에서 비롯된 것은 물론 아니다. 『라사리요』에서 서간체형식이 지니는 중요성은 서간체의 기원으로서가 아니라, 그 창조적 변용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호머, 소포클레스, 사포, 비르길리우스 등 희랍의 작가들로부터 계승되어 오비디우스나 페트라르카를 거치면서 서간체형식은 16세기 스페인문학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당시 스페인에서는 희랍 로마의 고전작가들의 서간문이 다량으로 유포되고 이태리 인문주의자들의 서간체문학이 번역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서간문의 기술적 활용이나 기교의 완성을 위한 다수의 교범집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물론 이태리 르네상스의 영향이기도 하였지만, 특히 화란의 종교개혁주의자 에라스무스가 스페인 인문주의에 미친 지대한 영향도 서간체형식의 활성화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²¹⁾ 에라스무스가 문예부흥기 스페인 사회와 종교사상에 미친 영향은 익히 알려져 있거니와, 문학형식의 발전적 변용에 끼친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²²⁾ 그는 하루의 절반이상을 편지쓰기에 몰두할 정도였다고 전해지거니와, 그의 주요한 저서들을 서간문형식으로 기술하여 일상적 서간문의 기능과는 전혀 다른 서술형식으로서의 서간체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에라스무스의 서간체 형식이 『라사리요』나 스페인의 산문 일반에 미친 형식적 기여는 무엇보다, 특정인의 수취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술형식이었다는 데 있다. 이러한 서술형식은 서간문이 서간체라는 독립된 장르나 형식으로 성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며, 『라사리요』에서와 같이 픽션의 형식적 틀로 운용될 가능성을 예시해 준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서간체형식의 픽션으로서의 가능성은 감상소설 *La novela sentimental* 에서도 발견된다. 중세말기에서 르네상스로 가는 길목에서 출현한 스페인의 감상소설은 물론 보카치오 Boccaccio나 피콜로미니 Piccolomini와 같은 이태리 작가들의 영향이 현저하지만, 디에고 데 산 페드로 Diego de 'San Pedro, 환 테 플로레스 Juan de Flores, 환 테 세 구라 Juan de Segura 등으로 이어지는 주요한 작가군을 형성하여 독자적 장르를 확립시켰다. 이들 소설은 주인공이 흠모하는 여인에 대한 사랑의 고백과 그에 대한 회신으로 반복되는 서간문형식을 기조로 하고 있으며 끝내 이를 수 없는 사랑의 관계를 지극히 감상적 토운으로 엮어낸다. 그렇다면 이들 소설에서 서간체형식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프리에또 Antonio Prieto는 이들 소설의 공통적 테마인 사랑의 좌절에 주목하면서 작가의 내면적 감정을 언어적 표현으로 치환시키는 과정에서의 잠재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비애를 극복하려는 자기위안의 원리 *Consolatio*를 찾고 있다.²³⁾ 그에 의하면, 르네상스 시대의 스페인인들이 서간체형식에서 발견한 것은 문자에 의한 감정의 전이는 물론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21) Víctor García Concha: *La nueva interpretación del "Lazarillo de Tormes"*, Castalia, Madrid, p. 49.

22) Marcel Batallion: *Erasmus y España*, 특히 XI, XII, XIV장을 참조할 것.

23) Antonio Prieto: *La prosa española del siglo XVI*, Cátedra, Madrid, 1986, p. 62.

자기감정의 호소와 해소, 억제와 위안이라는 것이다. 『라사리요』에 대해서도 같은 해석을 적용할 수 있는가? 『라사리요』는 하나의 서간문으로 두 사람 사이에 주고 받는 다수의 편지모음인 감상소설과는 형식상 차이는 있지만, 서간체의 일인칭 서술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그보다 양자의 근본적 차이는 작가의 관점에서 보여진다. 감상소설에서 작가와 주인공은 대체로 동등한 신분과 동질적 의식구조를 기초로 일치된 관점을 보여 주는 데 반해, 『라사리요』에서 작가와 인물은 상호 전도된 관점에서 서 있다. 다시 말해, 감상소설에서의 미구조는 일원적인 데 반해 『라사리요』는 이원적이거나 다원적일 수 있으며, 그것은 작가와 인물 뿐만 아니라 인물과 독자의 퍼스펙티브도 다중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감상소설에서 작가의 예술적 가치로 기대되는 “자기위안”의 기능이 『라사리요』에 있어서는 허구인물인 주인공 라사르에게만 한정될 문제인 것이다. 더구나 감상소설에서 주인공의 사랑의 좌절은 수신자나 독자에 대한 호소력을 지닐 수 있겠지만, 『라사리요』의 자기기만적 결말은 해학적이거나 더 나아가서는 몰염치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러므로 『라사리요』는 서간체형식이 보일 수 있는 “자기위안” 그 자체라기보다는 기껏해야 그것의 페러디로나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라사리요』에서 서간체형식의 의미는 그것이 지니는 현실적 기능성에서가 아니라 픽션 또는 소설형식으로서의 구조적 기능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왜 라사리요는 “귀하”에게 미치는 서간체형식을 필요로 한 것인가? 그것은 라사리요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한 소외된 인간의 자서전”을 현실화하는 데 필연적이어야 할 구실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닌가? 저급한 신분의 주인공이 자신의 인생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만인의 주목을 받을 각별한 동기가 주어져야 할 것인데, 실은 라사리요가 것처럼 가치있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온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모티브를 그의 삶 또는 소설의 내용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형식 자체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귀하”의 요구에 의해 “귀하”에게 보내지는 이 소설의 형식이야말로 각별히 모범적 인생을 요구하는 특정신분의 자서전이라는 신분적 규범적 제약을 우회할 수 있는 면책의 구실로 더 없이 적합하였을 것이다. 라사리요는 “특정사안”에 대한 “귀하”의 요청(“se le escriba y relate el caso muy por extenso”)을 구실로 삼으면서 그 사안에 국한된 중간부터가 아니라 인생의 처음부터 얘기하는 것이 자신의 진부를 알릴 수 있을 것이라며(“pareció me no tomalle por el medio, sino del principio, porque se tenga entera noticia de mi persona”) 소설공간을 확장시킨다. 뷔리에또는 서간체형식의 발화과정에서 수신과정에 이르기까지 잠재적이며 미완의 상태로 존재하는 망각의 지대가 시기를 초월하는 무시간적 예술공간을 창조하는 데서 감상소설의 “똥솔라티오”가 비롯된다고 말한다.²⁴⁾ 이러한 해석은 문자의 영속성과 예술성을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관계짓고 있기는 하지만 인쇄술의 발전과 고전에의 관심 증대로 르네상스기에 광범위하게 확산된 독서문화의

24) 인용된 책, p.63.

중요성을 강조하는 일면의 가치를 무시할 수는 없다. 문예부흥기의 스페인에서 서간문은 다수의 독자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소비문학의 한 형식으로 대두되었고 문학 수요의 증대와 더불어 종래의 서간문이 지녀온 사신의 성격이 객관적 서술형식으로 변용되었음은 물론, 이와 동시에 서간문형식 자체가 화자의 객관적 메시지를 내면화시킬 수 있게 하여 소설로의 발전에 기여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라사리요』의 서간체형식의 문제는 두가지 관점에서 고찰될 수 있다. 다시 말해, 화자와 수신자의 사실적 관계가 허구화되어 문학장르의 새로운 변용을 가속화시켰다는 서간체형식의 구조적 역동성과 더불어, 그러한 변용의 과정에 미친 사회적 변화의 요인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서간체형식의 등장이 내포하는 사회적 변화의 맥락은 그것이 『라사리요』라는 특정 작품의 형식에 한정되지 않고 게바라 Antonio de Guevara나 비알로보스 Villalobos와 같이 서간체형식으로 픽션의 가능성을 시험한 다수의 문예부흥기 작가들에 확대되어 있었다는 사실에서 강조될 수 있다. 게바라의 『사신(私信) *Epistolas familiares*』은 성경이야기, 정치적 문제, 사랑, 부부관계 또는 역사적 사건 등을 상상력을 통해 소설적 소재로 발전시킨 일종의 미셀러니인데 제목 그대로 서간체형식으로 쓰여져 있다. 에라스무스의 서간문처럼 종교적 도덕적 사상적 문제를 진개시킨 논술목적의 서간체형식이 아니라 일상적 현실의 허구적 재창조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소설에 일층 접근하는 것이었다. 그의 작품이 스페인은 물론 유럽 각국에 소개되어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던 것은 당시의 독자층의 지식에의 욕구와 소설적 형식에 대한 기호 증대, 이를테면 사실의 진위나 도덕성의 문제보다 흥미본위의 독서수요의 증가라는 사회적 변화에 편승할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그러한 흥미본위의 허구물이 내포하는 현실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도 문예부흥기 스페인사회의 지적 분위기에 부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산문의 소설적 발전과정에서 서간체는 형식의 다양한 변용과 혁신의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게바라의 서간체 산문들은 이러한 픽션의 창조와 더불어 예술적 문학형식의 모색이라는 근대적 정신을 내포하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라사리요』와 같은 발전적 형태의 소설양식이 출현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라사리요』가 기존의 서간체형식의 산문, 또는 게바라의 서간체 픽션들보다 형식의 진보를 보여주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인가? 『라사리요』는 일인칭 화자의 선택과 서간문형식의 운용이라는 기존의 구조적 패러다임을 단순히 수용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능화하고 구조화시킨다. 『라사리요』에서 자서전형식과 서간체양식은 화자인 “나”의 “현재”라는 단일의 시점을 통해 구조적으로 응집되기 때문이다. 오스틴 워렌 Austin Warren은 『라사리요』를 포함하는 악자소설 *La novela picaresca*에서 각각의 에피소드들을 연결시켜주는 것은 오로지 시간적 배열과 단일인물의 존재이며 다른 구조적 질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다.²⁵⁾ 이와 같이 악자소설에서 에피소드 사이의 구조적 축이 결여되어 있

다거나 주인공의 다양한 모험에서 일관된 구성원리를 찾아 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라사리요』가 이야기의 종결국면을 결여한 개방소설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된다. 이에 대해 가르시아 데 라 콘차 Víctor García de La Concha는 『라사리요』의 결말이 주인공의 생존훈련과정의 종결을 의미하는 완벽하게 닫혀진 소설이며, 그래서 『라사리요』는 현실체험과정에서 자신의 본질을 발견하고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투영시킨 “다중적 메타포 una gran metáfora polivalente”라고 규정하는 동시에 그것은 복합적 시점—인생체험의 제생과 평가 제시와 회고—을 통해 퍼스펙티브를 형성한다고 말한다.²⁶⁾ 라 콘차가 말하는 “다중적 메타포”는 벨릭 Oldrich Belic의 말처럼 문학의적 시대상황에서 비롯된 인식론적 현실, 즉 19세기나 20세기와 같은 서사시적인 총체적 사회현실묘사 *síntesis social*가 불가능했던 16세기의 “필연적으로 파편적인 세계 el mundo necesariamente fragmentario”를 반영하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그 자체가 『라사리요』의 구성원리의 하나일 수 있다.²⁷⁾ 벨릭에 의하면 『라사리요』의 구성원리는 단순한 자연적 시간배열을 극복하는 소설적 시간 el tiempo novelesco 구성에 존재하는 것이며, 그것은 바로 약자소설 공통의 요소인 회귀적 시점 la visión retrospectiva으로 귀결된다.²⁸⁾ 요컨대 주인공의 현재인 소설의 종결시점에서 시간을 과거로 투사함으로써 이야기가 비록 자연적 시간을 따라 전개되더라도 현재의 기억에 의해 선별되고 평가되고 상상되어질 수 있는 소설적 공간이 발생하게 된다. 시점의 고정은 소설의 처음 상황에서 종결에 이르기까지 주인공의 성격변화를 일으키는 인물의 내면과 현실사이의 갈등구조를 조망할 수 있게 한다. 그것이 바로 『라사리요』가 보여준 주목할 만한 “근대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시점의 고정은 “귀하”에게 “네”가 전달하는 “나”의 인생이야기라는 서간체 형식과 자서전형식에 의해 구조적으로 뒷받침된다. 소설은 “나” 라사르가 미친한 신분의 가정에서 태어나 위선과 기만, 허영과 부패로 가득찬 사회현실에서 생존의 방법을 훈련해 가는 과정이자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현재의 자수성가를 이루게 되는가를 서술한다. 그의 현재의 상황이란 떠돌이 시동으로서의 생활을 벗어나 결혼을 통해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고 신분보호와 경제적 안정을 기할 수 있는 포도주 조달업자가 된 자기 자신의 현실을 말한다. 그러나 “귀하”의 친구이자 사제인 산 살바도르의 후원을 얻게 된 것은 사제와 정을 통해 온 하녀와의 결혼과 그러한 부정한 관계의 묵인을 넷가로 하는 것이며, 그 때문에 라사르의 도덕적 지위는 그의 부모들보다 더욱 타락한 상황에 머물게 된다. 라사르가 믿거나 공언하는 경제적 지위상승과 안정된 가정의 확보란 그의 말대로 워싱턴의 출세를 의미

25) René Wellek, Austin Warren, *Literary Theory*, José María Gimeno Capella의 스페인어 번역판, Cuarta Gredos, Madrid, 1981, p.258.

26) 인용된 책, p.186.

27) *Análisis estructural de textos hispánicos*, Editorial Prensa Española, Madrid, 1969, p.47.

28) 같은 책, p.41.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정반대의 도덕적 지위하락으로 상쇄되어 버린다. 이러한 소설의 반어적 구조는 주인공의 시점이 독자의 시점과 대치될 때 극명하게 부각된다. 플라톤 철학에 기초한 이상주의를 기조로 한 당시의 스페인 사회에서 라사로는 서사시적 또는 로망스적 영웅이거나 이상인물이 아니라 그와 대비되는 반영웅 el antihéroe이며, 그 때문에 그의 인생을 전기적으로 기술할 제삼의 객관적 서술자를 찾을 수 없었고 불가피하게 스스로 자신에 대해 얘기하는 일인칭 서술방식을 취하게 되었으며, 그것이 결국은 자서전형식의 페리디로 귀결되었다고 하자. 같은 맥락에서 “귀하”를 수신자로 하는 서간체형식은 미친한 라사로를 주인공으로 하는 자서전형식이 불가피하게 노정시키는 페리디 효과, 또는 그 희극적 결과를 완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현재상황을 지위가 높은 “귀하”에게 보고하는 서간체형식은 라사로의 전기를 표현하는 상당히 완곡한 자세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나”를 서술의 주체요 객체로 하는 자서전형식과 “귀하”를 보고 대상으로 하는 서간체형식은 인물과 시점을 고정시키는 기능적 효과를 가져와 결과적으로는 소설구성의 유기적 원리로 통합되어 나타난다. 달리 말하면, 서간체형식은 소설시점의 고정을 위한 필연적 선택이었을 뿐만 아니라 라사로의 시점과 독자의 시점을 대치시키는 반어적 구도, 또는 주인공의 자기성찰을 독자의 상식에 추돌케 하는 대화의 한 형식으로 가장 적합하게 생각되었을 것이다. 그것은 보다 은밀한 페리디, 즉 페리디를 쓰면서 그것을 눈에 띄지 않게 하며 보일듯 보이지 않게 하려는, 다시 말해 『라사리요』의 픽션구성에 작용하는 두 가지 상반된 힘의 벡터가 이론 균형과 조화의 원리라고도 할 수 있겠다. 또한, 그것은 르네상스 문예이론이 추구한 뫼진성의 원리, 다시 말해 소설을 보다 사실적으로 제시하려는 리얼리즘적 의지의 발로인 것이다. 여기서 19세기 리얼리즘으로 향하는 소설의 효시로서의 『라사리요』의 면모는 동시에 소설의 원초적 형식으로서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라사리요』는 고정된 시점을 이중적 퍼스펙티브로 투사하여 반어적 구도를 확립하고 인물의 가치전도과정을 묘사하면서도 ‘스타일의 분리원칙’이라는 고전주의적 규범의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라사로는 저급한 인물과 진지한 테마의 상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회현실의 희생물로서 보여주는 비극적 진지성과 자기 부정 내지는 자기기만이라는 몰염치한 희극성을 상호 상쇄시킨다. 그러므로, 서간체형식은 스타일의 분리원칙에 어긋나는 인물과 테마의 상충관계를 중화시키는 형식적 노력의 소산이다. 그 때문에 서간체형식은 『라사리요』에서 소설적 효과를 증대시키는 구성적 기능적 요소인 것이다. 그러한 기능성은 서간문의 실질적 가치를 잠식하고 수사적 의미를 강화하게 된다. 소설이 전개되면서, 서간체형식의 기능적 수사적 의미가 점점 증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이를테면, 서간문의 수신행위자로서 “귀하”가 지니는 실질적 의미는 소설 속에서 반복되는 “귀하”에 대한 주의환기를 통해 지탱되어 가는데, 마지막 제 7장에 이르러 “귀하”는 아내의 정부인 산 살바도르의 친구로 확인되어 소설 내부의 인물로 바뀐다.

단순히 이야기를 수신하는 이야기 밖의 행위자에서 이야기되는 사건에 연루된, 즉 이야기를 구성하는 이야기 내부의 소설인물로 변신한다는 말이다. 서간체형식을 이야기서술에 도입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창조된 “귀하”는 소설이 전개되어 가면서 수신자의 틀을 벗어나 3인칭화되며 서간체형식의 비중이 감소하고 서술의 객관화가 증폭되어 간다. 요컨대, 『라사리요』에 있어서 서간체형식은 주인공의 과거를 회귀적으로 서술하게 하는 시점의 고정과 유기적 관계하에 놓이며 자서전형식의 사회적 제약과 반영웅의 자기성찰과 현실비판이라는 스타일상의 상충을 극복하게 해주는 형식적 기능을 지니는 것이다. 그것은 소설의 객관적 시점을 예비하는 하나의 발전과정 속에 있는 미완의 형식이며 『라사리요』가 지니는 소설의 효과적 가치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라사리요』에서 자서전과 서간체라는 형식적 요소의 기능성은 동시에 “대화체”라는 또 하나의 구성원리에 통합된다. 문학작품이 근본적으로 작가의 독백이 아니라 독자를 대상으로 한 커뮤니케이션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면, 『라사리요』는 명예를 얻기 위해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의 목표를 추구하는—Honos alit artes—동시에 커뮤니케이션 원리를 소설전개의 구조적 형식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소설의 모든 에피소드에서 수신자인 “귀하”를 게재시켜 일률적 과거시제로 서술되는 이야기의 시점이 현재임을 드러내는데, 그것을 보다 넓은 의미로 확장해 보면, “나”와 “귀하”의 대화 *Diálogo*라는 형식으로 환원된다. 『라사리요』의 편지형식은 수신자인 “귀하”에게 소문에 오르내리는 아내와 성직자의 내통관계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한편, 주요한 핵심부분마다 “귀하”의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대화의 형식에 보다 더 접근한다. 우리가 보아왔듯이, 이러한 대화의 틀은 그것이 다루는 사안이 작가의 이해관계와 직접적 관련성이 희박해지는 픽션의 구성에 이르러서는 형식적 효과가 강조되고 상대방을 설득하고 결론을 구하는 실질적 의미의 대화의 성격은 사라지게 된다. 『라사리요』에 있어서도 “나”와 “귀하”의 커뮤니케이션 관계는 귀하의 수신시점에서 완결될 것이지만, 그것이 허구의 형식으로 수신자가 특징인 “귀하”가 아닌 불특정의 다수독자로 확대될 때, “나”의 발화행위도 “귀하”의 수신행위도 그 의미의 비중은 현저히 후퇴한다. 『라사리요』에 있어서도 대화의 구조는 논리적 형식이라기보다 소설의 내용을 구현하는 미적 형식으로 형상화되며, 새로운 장르의 모색이라는 르네상스적 문예상황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대화체는 『라사리요』의 구조적 형식인 동시에 라사리오와 그가 봉사하는 주인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표현하는 구체적 서술기법으로 활용된다. 대화체는 그 발생기원상 변증법적이다. 중세의 스콜라철학에서 운용되던 논쟁형식에서 대립된 의견을 가진 두 사람이 무술적투와 유사한 논리적 대결로 상대방을 물리침으로써 자신의 옳음을 입증하는 과정으로 이해되었다.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에서 기원하여 중세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이나 스콜라철학에서 ‘논쟁 *Et debate*’이라는 논증의 한 방식으로 변형되었다. 르네상스기의

산문은 대화의 원초적 기능을 극복하여 다수의 인물들의 자유로운 대화라는 보다 개방적인 형식으로 발전되어 서술과정을 대체하기에 이른다. 『라사리오』에서 라사로와 주인 사이의 대화구조는 동끼호테와 산초의 이른바 대결적 구도와 유사하다. 라사로의 모험을 기반적 사회현실에서의 생존을 위한 삶의 이해와 단련과정으로 고려할 때, 그의 주인에 대한 관계는 대체로 봉사인 동시에 대결이요 기반과 환멸의 과정이다. 『라사리오』는 부분적으로 대화형식의 직접화법을 사용하는데 인물심리의 표현이나 사건진행이 긴장극면에 치할 때 이러한 기법이 두드러져, 단조로움을 극복하고 보다 사실적인 소설화에 기여한다. 대화형식의 산문은 화자의 언어를 직접적으로 구사하므로 인물의 심리상태에 대한 보다 사실적인 반영을 가능하게 하며, 서술형식보다 상황과 행위의 현장감을 부각시켜 문예부흥기의 이른바 픽션성의 원칙에 상응하는 것이기도 하다.³⁰⁾ 라사르가 장님의 시동이 되어 겪는 모험과정을 다룬 1장의 마지막 부분은 두 인물의 대화를 통해 그 심리적 상황이 극적이고도 효과적으로 묘사된 훌륭한 예이다. 장님은 라사로로 하여금 황소모양의 바위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머리를 밀어 부딪쳐 꿀탕을 먹이는데, 라사로는 그에 대한 철저한 양갈음을 위해 장님을 유인, 물이 붙어난 개울물을 건너뛰게 하여 맞은편 바위에 머리를 부딪쳐 나뉠군게 한다. 이 과정에서 빗속의 배경묘사나 인물의 심리적 움직임이 사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무엇보다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대화체 형식은 문예부흥기 신문발전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형식요소라고 할 수 있다. 서간체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소재를 서술 또는 논증하는 미셀러니나 에세이의 주요한 형식매체로 활용되었거니와 에브레오 León Hebreo의 『사랑에 관한 대화 *Diálogo de amor*』와 같은 논술서에서 라구나 Andrés Laguna의 『터키 여행 *Viaje de Turquía*』와 같은 픽션에 이르기까지 르네상스 산문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라사리오』는 비록 소설전체가 대화형식으로 쓰여지지 않는 않았지만, 16세기 스페인 문학형식의 구심점 역할을 한 대화체를 구조적 축으로 하였으며 주인공의 현실에서의 갈등상황을 표현하는데, 특히 직접화법의 구사를 통해 현장감과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대화체 형식이 르네상스기 스페인산문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르네상스정신이 구가한 증세적 구축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요, 인간이성의 자유로운 표현과 형식의 승리를 의미한다. 물론, 고전부활의 시네깡신에서 고대의 문학전통을 재현하는 과정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전통의 답습이 아닌 창조적 혁신에 더욱 큰 의미가 주어져야 한다. 대화체는 고전적 규범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고도 개방적인 산문형식을 추구하는 길을 열어준 셈이다. 스페인에서는 특히 에라스무스의 영향으로 인문주의자들이 논술시의 주된 형식으로 대화체의 나

30) 프리에토 Antonio Prieto는 대화체 형식이 지니는 신축성과 그로 인한 자유로운 형식적 변용의 가능성이야말로 픽션성의 원리를 추구한 16세기 스페인 산문에서 대화체형식이 폭넓게 다루어지게 될 이유일 것이라고 지적한다(인용된 책, p.102).

양한 가능성을 모색하였거니와³¹⁾ 그것이 픽션의 서술형식을 대체하거나 풍요롭게 하는 데도 결정적으로 기여하였음은 물론이다. 『라사리오』가 전승민담 Folklore의 구작을 벗고 소설의 효시로서의 가능성을 보이게 된 것도 16세 대화체형식의 발전을 빼놓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서전형식이나 서간체형식 또는 그러한 형식적 패러다임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단일 시점에서의 조망이라는 『라사리오』의 소설형식은 어떤 구조적 원리에 기초하는 것인가? 그것은 르네상스 사회사상의 기축을 이루는 인간회복과 그것을 담보해주는 “나”의 주체의식일 수도 있다. 인간이성이야말로, 이성적 주체로서의 “나”야말로 사물은 물론 “나”의 현실을 해석하고 평가할 권리와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확고한 자의식이 라사리가 라사리오이기를 주장하는 자전적형식의 모티브요, “귀하”에게 “나”를 옹호하는 서간체형식의 동기유발자요, “나”의 오늘을 통해 세계를 보려는 “현재의 나”의 단일시점이라는 구성원리가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한 구조적 이념원리는 “나”에 대한 “너”를 상징하는 사회적 의미와 인간의 사회성을 지탱해 주는 커뮤니케이션과정을 통해서만 구현될 수 있다. 자서전형식도 서간체형식도 르네상스기의 이성의 확장과 사회화 그리고 대화체라는 의사소통의 공간적 확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Ⅲ. 결 론

우리는 ‘지금까지 16세기 스페인문학의 사조적 관점에 기초하여 산문의 역동적 발전과정에서 추출되는 구조적 형식요소들에 주목하였다. 특히 근대적 의미에서 소설의 효시로 일컬어지는 『라사리오 데 토르메스』에 그러한 형식적 요소들이 어떻게 수용되어 리얼리즘 소설의 지평을 열게 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라사리오』가 소설의 효시로 평가되는 것은 주인공과 현실의 갈등구조라는 소설의 기본구조를 제시하고, 라사리의 모험과정을 통해 그의 개인적 가치나 이상이 사회현실의 타락한 가치구조에 의해 왜곡되어 가는 아이러니를 보여 주었다는 데 있다. 문예부흥기 미학의 규범으로 인식되었던 뫼진성 la verosimilitud의 원칙은 신플라톤주의라는 시대사상으로 주류를 이루던 이상주의적 로망스에서가 아니라 『라사리오』와 같은 사실주의적 산문에서 두드러지게 구현되었다. 스페인 인문주의운동이 기사도소설이나 목가소설과 같은 비현실적 소설을 공격했던 주요한 논거 중의 하나는 뫼진성의 결여와 도덕성의 결핍이었다. 뒤집어 생각하면, 『라사리오』와 같이 리얼리즘에 경도되어 보다 올바른 현실이해의 가능성을 제시한 소설경향은, 스페인 인문주의운동, 곧 에라스무스정신을 구현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게 한다. 현실을 보다 사실적으로 해부하려는 노력은 현실을 떠나 이상화된 세계로 도피하는 로망스 소설들과는 달리 삶의 왜곡된 현실이나 부정적 측면을 노출시키게 되었을 것이며, 그런 맥락에서 『라사리오』의 반어적 구조는

31) Marcel Batallion, 인용된 책, pp.643-654.

자연스럽게 현실비판을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그러한 반어적 의미구조는 형식적 패러다임들의 유기적 통합이라는 『라사리요』의 구성원리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라사리요』의 형식적 패러다임들이란 자서전형식, 서간체, 대화체와 같이 문예부흥기 스페인산문에서 보편화되어, 증세를 넘어서 르네상스적인 새로운 장르의 모색과정에서 비롯된 서술형식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형식적 패러다임들은 그 형식 자체가 사실적 분위기를 창출해 낼 수 있다. 추상적 편념적 서술체계보다 대화나 서간이나 자기고백의 서술방식은 훨씬 현장감을 더해 주는 것이다. 이를테면 “나”의 인생을 일인칭 화자인 내가 직접 이야기하는 형식은 제삼자에 의한 서술방식보다 현실감을 더할 것이며, 어떤 소설적 이야기를 편지형식으로 수신대상을 상징하는 것도 픽션의 박진감을 돋울 것이다. 신이라는 기독교적 이상에 종속되었던 인간의 현세적 가치를 회복시키려는 르네상스정신은 인간의 관심을 신의 섭리에서 합리적 이상으로, 피안에서 차안으로, 하늘에서 지상으로, 신비와 이상에서 객관적 일상적 현실로 돌아오게 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리얼리즘은, 신플라톤주의가 주도적 사회사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르네상스산문이 필연적으로 지향해 나갈 하나의 목표였는지도 모른다. 물론 이와 같은 논의는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인지 모른다. 대화형식이나 서간체형식이 동시대의 이상주의적 목가 소설이나 감상소설에도 여전히 유효한 형식적 패러다임들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르네상스의 산문이나 그 형식적 패러다임들을 사실주의적 관점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르네상스기 스페인 산문이 사실주의적 경향을 지향한다는 점은 문제의 모든 것을 해명하는 것은 이니더라도 일면의 해석일 수는 있다. 동시에, 『라사리요』와 같이 유독 스페인 산문이 소설이라는 새로운 장르의 탄생을 준비하면서 리얼리즘적 체질을 보여준 데 주목하면, 스페인적 전통과 산문발전은 주목할 만한 상관성을 갖는 것인지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라사리요』가 보여준 리얼리즘은 스페인의 문화적, 역사적 전통이 빚어낸 해학정신과 접목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라사리요』의 리얼리즘정신에 주목하면서 그것이 소설의 효시적 가치를 지니게 된 형식적 완결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라사리요』는 르네상스기에 새로이 등장한 형식요소들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소설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시 말해, 『라사리요』에서 주목되는 것은 거기에 쓰인 형식요소들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형식요소들의 구조적 통합에서 일어난 소설적 구성원리인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러한 형식적 완결성을 담보하는 사회사상적 지표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며, 르네상스의 세계관이 내포하는 인본주의는 그러한 논의의 결론에 상당히 접근시켜 준다. 우리는 『라사리요』의 소설형식을 지배하는 원리를 문예부흥기 산문의 역동적 발전과정에서 중요한 패러다임들을 통해 분석하였거니와 그러한 패러다임들의 문학형식으로서의 가치는 물론 사회사상적 의미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은 문제를 해명하고 종결짓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는 데 불과하다. 동일한 형식의 구성원리를 표방하는 『부스꼰의 생애』나 『구스만 데 알파라체』와 같은 소위 악자소설 장르의 또 다른 소설들은 어떻게 르네상스와는 다른 자학적 인간부정이라는 비관적 세계관을 시사하며, 또 신의 질서로 복귀하려는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인가? 르네상스 정신을 인간회복과 이성애 대한 신뢰로 설명하는 것은 어디까지 타당한 것인가? 『라사리요』의 인본주의 정신은 인본주의애의 환상과 좌절을 함께 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The Formal Elements and Humanist Spirit
in the *Lazarillo de Tormes***

Chun-Jin Kim

This paper proposes to review the structural principle of various formal paradigms in the *Lazarillo de Tormes*, which signifies the birth of the modern novel in literary history. *Lazarillo de Tormes* presents problematic structure between the protagonist and the real world in which he must survive. The protagonist, servant of a poor blindman, succeeds finally in life as wine-auctioneer, which guarantees his economic stability and social security. But his economic success results from his hypocrisy that he has learned from the same society. Lazaro's successful situation is guaranteed by his tacit agreement to his wife's illicit relation with a high-rank minister. After all, Lazaro's spiritual innocence becomes as much degraded as the hypocritical, value-lacking reality: his life of socialization implicates self-learning process of hypocrisy for survival and his own adjustment to the degraded social circumstances.

This irony is embodied in the structural elements such as autobiographic, epistolary and dialogic forms. The very autobiographic form, in which a miserable personage of the lowest social class narrates his infamous life, is as much ironic as his life itself. The epistle which is addressed to "vuestra merced" offers him a plausible pretext to manifest such an "undesirable" autobiography. At the same time, this epistolary form of narration can be integrated in the dialogic model of communication of the autobiographic "ego" in the social context. Therefore, we can say that the great invention of *Lazarillo de Tormes* is originated rather than from casual combination of such formal elements, from the organic integration of those universalized paradigms in the Renaissance prose.

The integration of the aforementioned formal paradigms in the *Lazarillo de Tormes* reveals a principle of composition which should be considered within the social context of the Renaissance period, that is, the principle of centering all organic structure of the novel in the human self-consciousness. Lázaro considers himself microcosm and pretends to interpret the world according to his own value system. He proclaims his individual value elevated enough to write his autobiography, and defends himself before "vuestra merced" against the adverse circumstances. Lázaro intends to project the world through

his own perspective which is fixed at his “present” successful moment.

Nevertheless, this thesis cannot offer a complete solution to such an organic structure of the formal elements, but only poses new problems: why the other “novelas picarescas”, *El Buscón* or *Guzmán de Alfarache*, composed in the same formal paradigms, reflect the self-negating, pessimistic and deterministic position unlike the anthropocentric Renaissance spirit of *Lazarillo*?